

# AIDS NEWS

## 에이즈 단일 백신 개발 불가능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많은 변종에 다 듣는 單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미국 듀크 대학의 바톤 헤인즈 박사가 밝혔다.

헤인즈 박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HIV는 이처럼 변종이 많기 때문에 에이즈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주로 HIV에 감염되지 오래됐는데 아무런 증상없이 장기생존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UPI=聯合)

## 제약업체들 에이즈백신 개발 기피 - 이윤 전망 흐리고 부작용 피소 우려

에이즈 바이러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볼 전망이 흐린데다 부작용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유엔의 한 에이즈 관계자가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유엔 기관으로 구성된 갖 출범한 유엔에이즈계획의 피터 피오트 사무국장은 고소당할 위험이 큰 것이 민간 부문이 많은 경비가 드는 에이즈 백신 개발 연구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AFP, AP=聯合)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 인도서 AIDS 바이러스 새 균주 분리 - C 亞類型 모든 기존 백신 효과 못내

인도 과학자들과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균주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분리했다고 인도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지는 하버드대학의 한 에이즈 연구가의 말을 인용, 검사결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몇가지 백신 가운데 일부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균주에 대해서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백신중 그 어느 것도 새로운 'C 亞類型'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뉴델리 AP=聯合)

## 우유로 에이즈 치료제 개발 가능성

우유(凝乳)의 유장(乳漿)으로 만드는 위험이 적은 연고가 에이즈 치료의 차세대 약품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뉴욕혈액센터의 연구원들은 앞서 실험실 시험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억제시키는 B69라는 실험용 물질을 발견했다. (뉴욕 UPI=聯合)

## 英 연구진 에이즈예방 '화학콘돔' 실험 - HIV 감염만 막고 임신 가능성 여전

영국 과학자들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여성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이들의 임신 가능성은 여전히 터주는 '화학콘돔'을 개발, 임상실험중이라고 영국의 주간 과학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誌가 보도했다. (런던 로이터=聯合)

# AIDS NEWS

## 에이즈 어린이 평생치료비 40만 8천\$ - 모든 임신부 바이러스 감염 시험이 효과적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HIV)를 지니고 출생한 어린이의 에이즈 발병을 방지하는 데 평생 드는 의료비는 1인당 40만 8천달러로 추정된다고 한 연구원이 말했다.

미국 위스콘신 의과대학 소아과 부교수인 피터 헤이번스 박사는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상승하게 될 같은 의료비로 마루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낮은 지역도 포함해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시험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헤이번스 박사가 추정한 치료비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가 생존하는 평균 10년 동안 소요되는 병원 치료비, 약품 치료비 및 의사 개인치료비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워싱턴 UPI=聯合)

## 에이즈 치료 원숭이 골수이식 실패 - 다른 바이러스 침투없음 확인

지난해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를 위해 에이즈 환자에게 실시한 원숭이 골수이식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원숭이 골수를 이식받은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즈 환자 제프 게티는 지금까지 이식골수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술담당 의사인 UC 샌프란시스코대학의 스티븐 닉스 박

사가 밝혔다.

게티의 건강은 이식수술 이전보다 좋아졌는데 이식수술에 대비한 방사능 치료때문일 것이라고 닉스 박사는 진단했다.

그는 당초 동물의 기관을 인체에 이식할 경우 일반인들의 생명에 위협한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바이러스 침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점에서는 이번 수술이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聯合)

## 佛카톨릭 주교단 콘돔 사용 첫 허용 - 에이즈 예방목적 性생활 유형은 반대

프랑스 카톨릭 교회 주교단은 지금까지의 유보적 입장을 벗어나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의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주교단은 이날 '문제의 사회'라는 자체 문서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HIV)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 콘돔 사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표명했는데 에이즈와 관련된 콘돔 사용에 대해 프랑스 주교단이 이같은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聯合)

## 외과의 에이즈 감염 3천여 환자 검진 소동

파리 근교 생 제르망 앙-레 지역의 한 병원은 소속 외과외과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사실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은 3천여 환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감염 진단을 서둘러 실시하고 있다.

문제의 외과의는 지난해 가을 "수술중 손가락을 다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이 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최단 기간내에' 검사를 받도록 촉구함으로써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파리=聯合)



●에이즈는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 AIDS NEWS

## 移民 에티오피아人 헌혈혈액 폐기 - '에이즈감염률 높다'

이스라엘에 이주한 에티오피아人 1만여명은 시몬 페레스 총리 집무실 주변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수시간동안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가 주례 각료회의가 열리는 총리 집무실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자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 강제해산에 나섰으며 시위대도 이에 맞서 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구타하는 등 폭력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0여명이 부상하고 시위자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날 시위는 이스라엘 혈액은행이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인이 헌혈한 혈액을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예루살렘 UPI로이터=聯合)

## 에이즈 진행 장기간 차단 가능 3종 치료제 혼합투여 강력 효과

이미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에이즈 치료제 AZT와 3TC에 현재 임상실험단계에 있는 새로운 에이즈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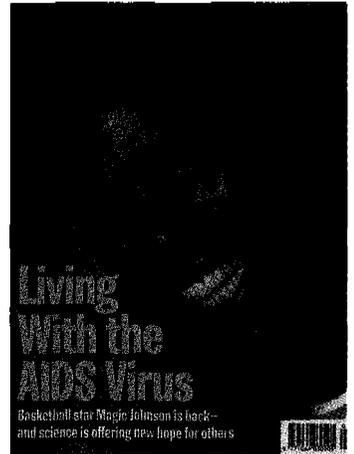
료제 인디나비르를 혼합투여하면 에이즈의 진행을 장기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뉴욕대학의 로이 걸릭 박사는 이 세가지 에이즈치료제를 혼합투여하면 에이즈를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에이즈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장기간 차단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중 그 어느 것도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AP=聯合)

## 개구리에 성행위감염 질병 차단물 질-에이즈·임질·성병 사마귀 등 방지 길터

에이즈를 포함, 성행위에 의해 감염되는 질할과 기타 현재의 치료제들에 내성이 강한 감염증을 차단하는 물질이 아프리카산 발톱 개구리와 별상어로부터 추출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플리머스 미팅에 있는 마이가닌제약회사 연구실의



●농구코트에 복귀해 맹활약중인 매직 존슨. AIDS 감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여전히 높다.

레너드 제이컵 박사는 최근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산 발톱개구리와 별상어의 주방어체제로부터 성행위로 감염되는 에이즈, 임질, 성병 사마귀 등과 다른 감염증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을 분리해냈으며 이를 마이가닌과 스칼라민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제이컵 박사는 과학자들이 실험용으로 흔히 이용하는 아프리카산 발톱개구리를 수술한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비살균 물탱크에 다시 집어넣어도 전혀 감염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개구리의 피부에 감염을 차단하는 물질이 있다고 판단, 연구 끝에 마이가닌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볼티모어(메릴랜드주) UPI=聯合)



# AIDS NEWS

## 美과학자 칩팬지에 에이즈 유발 성공 - 史上 처음 치료방법 연구 이용 가능

미국과학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칩팬지에 에이즈를 유발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에이즈 치료 방법연구에 사람환자 대신 칩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에모리대학 여키스영장류연구센터의 프랜시스 노렘버 박사는 1월 30일 레트로바이러스 - 기회감염에 관한 연례학술회의에서 1988년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C499호로 명명된 칩팬지에게 주입, HIV에 감염시켰으며 이 칩팬지는 작년 8월부터 에이즈의 전형적인 증세인 만성설사와 폐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렘버 박사는 이 칩팬지는 1990년 이후 HIV의 주공격목표인 T세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며 에이즈환자와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聯合)

## HIV감염 출생아 8명 에이즈 극복 유럽 5개도시서 어린이 219명 조사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채 출생한 어린이 9명이 추후 자기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럽의 사들이 보고했다.

의사들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

나는지 규명하는 데 연구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5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연구원들은 현재 9세짜리가 몇 명 포함되어 있는 이들 어린이 9명은 현재 모두 건강하고 면역체계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런던 로이터=聯合)



## 태국 에이즈기금 창설 올 98억원 조성

태국정부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에이즈 기금'을 창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태국은 심각한 에이즈 확산에 대처,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이즈예방통제집행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보사부 내에 에이즈課를 전담부서로 두고 있다. (방콕=聯合)

## 어린 매춘녀 에이즈 예방대책 촉구 - 比 외국인 상대 6만명 활동 확산 우려

필리핀의 한 상원의원은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진 외국인 변태 성욕자들의 입국으로 6만명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의 어린 매춘녀들에게 에이즈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에르네스토 헤라라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어린 매춘녀들은 안전한 성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해 성인 매춘녀들보다 에이즈와 그 밖의 다른 성병에 걸리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마닐라 AFP=聯合)

## 아르헨티나 전체피수 30% 에이즈 감염자 - 교정당국 골치 ... 동성애 등이 원인

아르헨티나 전체 피수의 30% 가량이 에이즈 바이러스로 알려진 HIV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르헨 교정당국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각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결수 2만6천여명을 상대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0%에 이르는 8천명 가량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기결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9.5%인 7백50여명으로 집계됐다. (부에노스아이레스=聯合)